

The Chronicle of Aesthetic Medicine Devices

모두가 편안한 탄력 시술, N CORE PRIME by 이루다



글/김기범(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학술이사)

“

김기범 원장은 국내 미용의학계의 대표적인 얼리어답터입니다. 김기범 원장을 얼리어답터로 이끈 원동력은 연구에 대한 의지와 디바이스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기기를 도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환자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다양한 디바이스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미용의학 전담의들은 신중하게 고민하여 디바이스를 선택하고 도입합니다. 병원 운영과 환자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디바이스이기 때문입니다. <The Chronicle of Aesthetic Medicine Devices>는 김기범 원장의 '디바이스 도입기'입니다. 김기범 원장은 이번 연재를 통해 디바이스 도입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최근 사회가 발전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즐기는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휴가를 호텔에서 보내는 stay+vacation, hotel staycation의 개념인 '호캉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선풍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호텔이 단순히 숙박과 비즈니스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넘어 복합적인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듯이 미용의학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는 문제가 발생한 병변의 치료를 위해 내원했다면 이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시술과 휴식을 동시에 누리는, 이른바 'flex'의 수단으로 병원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자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미용의학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시술 가격이 낮아지면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트렌드 속에 가장 성장한 분야 중 하나가 rejuvenation, 그중에서도 리프팅·타이트닝 시술이다. 탄력을 위한 시술은 유행을 타지 않는다. 지속 성장이 가능한 분야인 만큼 현재까지 다양한 종류의 기기들이 출시되었고, 이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기기를 도입했을 때의 상황

필자 또한 환자들의 관심사가 점점 탄력에 집중되고 있음을 진료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다. 환자들의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 과열된 경쟁 속에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을 마주하기도 한다. 환자의 피부 상태에 따라 다른 효과와 만족도, 수가 등의 문제다. 때마침 NIR(Near Infrared Ray) 방식의 기기가 출시한다는 소식과 함께, 활용법과 파라미터 등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한지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새로운 기기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지라 곧장 데모 일정을 잡았다. 바로 이루다에서 올해 9월 말 출시한 N CORE PRIME이다.

기기의 첫인상

N CORE PRIME은 기존의 이루다 기기들에서 흔히 보이는 외형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서 매우 익숙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최근 회사 CI를 변경하면서 디바이스의 전반적인 색상과 로고 등에도 변화가 있어 조금 더 기술지향적인 인상을 받았다. 새로운 변화를 위한 첫 시도가 리프팅·타이트닝 기기 리뉴얼이라는 점은 시사할 만하다. 마케팅과 이미지 개선 등 회사가 다각도

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아 긍정적이다.

필자의 병원은 주로 비침습적인 치료를 해오고 있지만 NIR 파장의 디바이스로 다시 시술해 보기는 정말 오래 간만이다. 십여 년 전 즈음에 고가의 외산 디바이스들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다. 돌이켜보면, NIR을 활용한 시술은 환자들이 참 편하게 받을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인기를 얻기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다양한 시술 노하우가 쌓이고 미용의학 시술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비밀 아닌 비밀인 듯 조금씩 알려지고 있다. 비침습적인 시술을 받을 수 있는 환자층이 조금 더 넓어지고, 반복 시술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가 높아지면서 비침습적인 시술들에 호응하는 것 같다. 이러한 측면에서 N CORE PRIME은 인기를 끌 요소가 많은 디바이스이다. 1~2주 간격으로 4~8회 정도 시술을 진행하는데



N CORE PRIME.

환자 입장에서는 편하게 마사지를 받는 느낌으로 누워만 있으면 된다. 효과는 매우 즉각적이다. 얼굴용(18×40mm)과 바디용(36×45mm)으로 구분되어 있는 핸드피스를 활용하여 다양하게 시술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전신에 사용 가능하다. 특히 바디용 핸드피스의 핸들링이 용이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어 시술 시 편리하다. 얼굴용 핸드피스로 조금 더 작은 팁이 추가되면 더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다.

기기를 도입하고자 한 결정적 이유

탄력을 개선하는 디바이스는 RF와 HIFU로 양분화되는 것 같다. 대표적인 외산 디바이스들이 꾸준히 사랑받으면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및 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업그레이드의 목적이 성능을 개선하기 위함인지 혹은 마케팅 때문인지 모르겠는 때가 많다. 이러한 와중에 국내 회사들의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양질의 기기가 출시되고, 환자를 위한 마케팅까지 고려한 기기가 선보이고 있다. 병원 상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이러한 디바이스는 빠르게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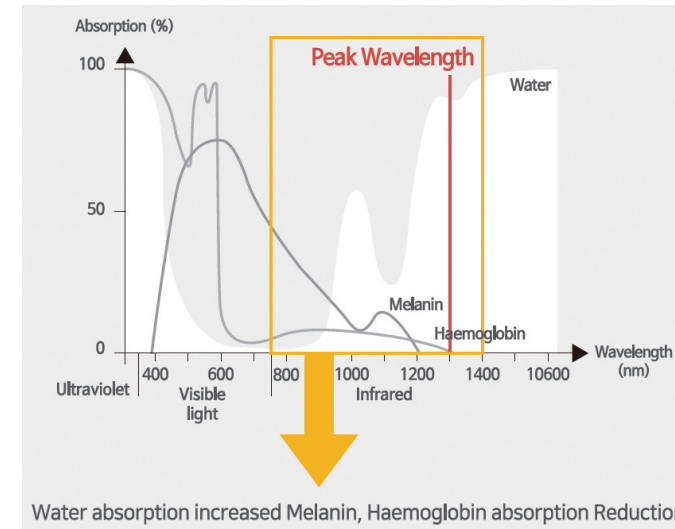
N CORE PRIME은 RF나 HIFU는 아니지만 편한 반복 시술을 제공하면서 즉각적인 시술 효과도 있어 환자와의 접점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디바이스라고 판단했다. 또한 강의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 탄력 이외의 영역에서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기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전 및 원리, Specification

N CORE PRIME은 근적외선 영역인 800~1300nm 파장대를 사용하는 기기로, 강한 열에너지를 진피에 전달하여 섬유아세포의 활성화 및 자극을 통해 sub-optimal neo-collagenesis를 발생시킨다. 즉각적인 수축과 탄력 증대, 전반적인 피부 개선에 효과적이다. 우리가 관심 있는 collagen의 흡수곡선은 FIR(Far Infrared Ray) 영역의 6000~7000nm에서 peak를 이루고 있어 진료 현장에서 시술에 응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물에 대한 흡광도가 높은 기기들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콜라겐에 열을 전달하여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피부의 탄력 개선을 위해서는 collagen shrinkage, fibroblasts activity, neo-collagenesis가 중요하다. 문제는 진피 내에 적절한 열을 넓게 전달하고 일정 온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체내와 세포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수분에 열을 전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물에 대한 흡광도가 높은 파장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N CORE PRIME은 800~1400nm 영역에서 물의 흡수율이 높고, 색소(melanin)와 혈관(hemoglobin)에 대한 흡수가 떨어지는 1300nm 파장대에서 peak 반응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며, 근적외선 자체가 일반 자외선과 가시광선보다 침투력이 높고 열전도성이 높으므로 리프팅·타이트닝과 같은 탄력 증대 시술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근적외선은 일반적으로 750~1400nm 영역을 의미하며 일반 자외선과 가시광선보다 침투력이 높고 열전도성이 강하다.

N CORE PRIME의 시술 모드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집중적으로 시술이 필요한 부위를 타기팅하는 contact 모드와 에너지를 피부 전체에 부드럽게 전달하는 motion 모드를 적용하여, 환자의 연령과 피부 상태, 시술 선호도 등에 따라 맞춤 시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면적에 따라 얼굴용 핸드피스와 바디용 핸드피스를 선택할 수 있어 활용도를 높였다. 개인적으로 얼굴은 contact 모드를 통해 부위별로 3~4회씩 시술하여 전반적인 디자인을 진행하고, 이후 motion 모드로 에너지를 전반적으로 전달하여 collagen remodeling을 진행하고 있다.

얼굴용 핸드피스는 면적이 넓어 열을 빠르게 전달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다. 바디용 핸드피스를 많이 사용해 보진 않았으나, 역시 넓은 면적으로 인해 빠른 시술이 가능하였다. 특히 림프순환 부족으로 부종이 발생하는 거드랑이와 여성의 가슴 옆 라인 혈행 개선에 유효성을 보였기에 활용성이 충분해 보인다. 체형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 아니더라도 약물이나 주사 요법 후 늘어진 체형의 조절에 유용하게 사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기기의 특성상 의료진의 스킬이 필요한 요소가 있다. 의사가 매번 일정한 효과를 보여주는 게 어렵지만 피부 상태에 따라 전달하는 에너지의 양과 세기

및 시술 모드를 적절히 조절하여 해결 가능하다. 또한 1회 시술로는 효과가 증장기적으로 지속되기가 어려우므로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 점은 큰 자극이 없는 시술인 만큼 다른 기기와 접목하여 다양한 시술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오히려 장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통증이 거의 없어 마취가 필요하지 않고, 시술 후 멍이나 부기 등이 발생하지 않아 다운타임도 없다. 오히려 시술 직후 피부가 환해지는 효과가 있기에 최근 트렌드에 알맞은 기기라고 생각한다.

(다음 호에 계속)